

◆ 북미

- 신용점수 활용에 대한 시각차로 보험업계와 감독당국 마찰
- 휴대전화 사용이 운전제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발표

◆ 유럽

- FSA, 여행자보험(CTI)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공개
- 불가리아, 자연대재해 대책을 위해 새로운 지진분석 모델을 발표

◆ 일본

- 상위 6개 손보사, 5월말 수입보험료 실적 감소
- 외국계 생보사 2007년도 수입보험료 실적 결과 발표

◆ 중국

- 외자보험회사의 중국 단체보험시장 공략
- 중국인민보험공사, 주택건물보험으로 대형재난에 대비하자

◆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

【 North America Insurance Industry News 】

□ 신용점수 활용에 대한 시각차로 보험업계와 감독당국 마찰

- 지난 5월 21일 미 하원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미국보험감독관 협의회(NAIC)의 McCarty가 한 발언을 놓고 NAIC을 향한 각 보험협회들의 비난이 일고 있음.
- 6월 1일 NAIC이 개최한 보험산업 간담회에서 미국보험협회(AIA), 미국 상호보험협회(NAMIC), 미국 손해보험협회(PCI), 미국 생명보험협회(ACLI)의 대표들은 NAIC이 보험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며 비판을 가함.
- ACLI의 관계자는 과거의 NAIC은 보험업계와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NAIC과 보험업계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함.
- PCI의 관계자는 이러한 소통부재의 단적인 예가 신용점수(credit scoring)에 관한 것이었다며, 플로리다 보험감독관인 McCarty가 보험료 산출에 있어서의 신용 점수 활용 금지안에 대해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았음.
- McCarty는 5월 21일 "The Impact of Credit-Based Insurance Scoring on the Availability and Affordability of Insurance"라는 주제로 열린 미 하원 청문회에 NAIC 대표로 참석하여 증언하였음.
- McCarty는 보험사의 신용점수가 인종/민족 간에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미연방통상위원회(FTC)의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보험사의 신용점수 활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힘.
- 한편, FTC는 2007년 여름 신용점수와 인구통계상의 상관관계는 미미하며, 신용등급이 좋은 소비자들에게 보험료 할인 효과가 있는 신용 점수 활용은 소비자에게 유익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Insurance Journal 등, 6/4)

□ 휴대전화 사용이 운전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발표

- South Carolina 대학의 연구진은 최근 휴대전화 사용과 같은 대화참여가 운전 미치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밝힌 보고서를 발표함.
 - 이 보고서에서 Amit Almor박사는 두 가지 실험을 통해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에 비해 말을 하려고 준비하거나 말을 하는 것이 4배 이상 더 많은 두뇌활동을 요구한다고 밝힘.
 - 두 실험은 모두 미리 녹음된 음성을 듣고 운전자가 대답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한 실험은 피실험자가 모니터 상의 시각적 모양을 판별 하도록 하였고 다른 하나는 스크린 상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마우스로 따라가도록 하였음.
 - Almor박사는 사람들은 대화과정 중 대화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며 이러한 노력이 크면 클수록 시각적 반응을 요하는 과제를 수행해내지 못한다고 밝힘.
- 또한 두 가지 실험에서 Almor박사는 음성이 나오는 스피커를 사방에 설치한 후 전방, 후방, 측방에서 차례로 음성을 들려주며 실험을 한 결과, 음성이 전방에서 들려오는 경우가 다른 경우에 비해 전방에 있는 시각적 요소들을 잘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것은 언어적 과제와 시각적 과제가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더 쉽게 수행됨을 보여주며, 이러한 사실은 자동차 스피커폰을 운전자가 바라보는 방향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줌.
-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25%의 교통사고가 주의산만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Nationwide Mutual사에 의해 실시된 설문 조사에서는 운전자의 73%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사실들은 연구자들이 휴대전화 사용이 어떻게 운전 미치 영향을 미치는 지를 연구하도록 자극하고 있음.

(Insurance Journal, 6/2)

【 Europe Insurance Industry News 】

□ FSA, 여행자보험(CTI: Connected Travel Insurance)에 관한 규정을 공개

- FSA는 휴일에도 판매되는 여행자보험인 CTI 보험에 관한 최종 규제안을 발표하였음.
 - 본 규정의 내용으로는 가격적정성을 비롯한 여행자보험 판매에 대한 리스크 규제, 고객 안전성 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같은 내용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나, FSA에서는 금년 6월 30일 부터 새로운 CTI 판매활동에 대해 인허가 신청서를 우선적으로 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함.
- 이로써 휴일에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가격이 일반보험 보다 3배가 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부터 이제는 적절한 가격에 해당하는 적정수준의 보상 범위의 보험 상품인지 아닌지에 대해 FSA는 확인해야 한다고 전함.
- FSA의 Dan Waters에 따르면, 이 같은 규제 시행 기간은 겨우 6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으며, 각 회사들은 이와 관련해 새로운 규제에 대한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임.
 - 따라서 다음 달부터 본 제도와 관련하여 인허가 지원서 접수를 시작할 것이며, 내년 1월 새로운 규제가 자연스럽게 시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업들에게 조언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MoneySupermarket의 보험관련 연구책임자인 Peter Gerrard에 따르면, 휴일에 여행사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보험상품의 경우 가끔 지급이 늦어지는 일이 있다며, 이 같은 여행자보험에 관한 규제가 여행자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이라고 전함.

(Insurance Times, 5/30)

□ 불가리아, 자연대재해 대책을 위해 새로운 지진분석 모델을 발표

- 세계 최고의 독립 재보험 및 리스크 중개사인 Benfield는 불가리아 국가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지진피해를 평가하는 새로운 지진분석모델을 발표하였음.
- CEE(중앙 및 동유럽)의 팀장인 Bruce Selby Bennett에 따르면, 불가리아의 GAPQuake 분석모델은 자연대재해에 노출되거나 재보험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보다 최적화된 것이라고 전함.
- 이러한 확률모델은 CEE(중앙 및 동유럽) 지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자연재해를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임.
- 이 자연재해 분석모델은 불가리아 과학자들로 구성된 팀과 Benfield ReMetics Natural Hazard사가 공동으로 개발하였으며, 불가리아의 지진 전문가인 Dimcho Solakov 교수가 본 연구팀을 이끌었음.
- 이 모델의 위험 구성요소는 31,000개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요인들을 비롯해 지진원인이 될 수 있는 주변국가(루마니아,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공화국, 그리스 터기)들도 모델 지역으로 포함하고 있음.
- 본 GAPQuake 모델을 이용하여 1928년 불가리아 플로브디프에 발생한 지진 리히터 규모 7을 가정한다면 그 손실액은 10.8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정함.
- 따라서 이번 World Bank 초청의 불가리아 자연대재해에 관한 워크숍 개최를 통해 불가리아의 지진 보험제도에 대해 점검해보고, GAPQuake의 최신 모델을 가지고 지진 발생 지역의 범위를 모델링하여 위험지역의 고객에게 보다 나은 보험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자 함.
- 불가리아 GAPQuake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50년 동안 주택에 미친 추정손실액은 17억 유로로 분석되고 있으며, 연간기준으로 가구당 겨우 19 유로에 해당하는 비용만을 커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Insurance Times & Benfield Press Release, 6/3)

【 Japan Insurance Industry News 】

□ 상위 6개 손보사, 5월말 수입보험료 실적 감소

- 일본 손해보험업계가 일본에서 영업 중인 상위 6개 손보사들의 2008년도 5월말 수입보험료 실적을 집계한 결과 닛세이도와손해보험을 제외한 5개 손보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수입보험료가 감소한 주된 이유는 4월부터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가 20%가량 인하되었기 때문이며 자배책보험을 제외하면 닛세이도와손보(7.1%), 손해보험재팬(0.2%), 니혼코아손해보험(0.2%)이 증가하였음.
- 다만, 자배책보험은 손해도 이익도 내지 않는 「no loss, no profit」이기 때문에 손익 면에서 마이너스는 되지 않아 실적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음.
- 자배책보험을 제외한 수입보험료 실적에서 성장세를 시현한 닛세이도와, 손보재팬은 수입보험료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자동차보험의 판매 확대가 성장세 시현에 기여함.
- 닛세이도와는 모회사인 니혼생명의 영업직원을 통한 판매가 성장하였고, 손보재팬은 2월에 개발한 자동차보험 신상품 「ONeStep」이 성장을 견인하였음.
- 자동차보험에서 큰 폭의 수입보험료 감소를 겪어야 했던 손보사들은 유류가격의 상승 등으로 4월 신차판매 대수가 침체하는 등 시장 환경 악화가 영향을 주었음.
- 화재보험도 주택 착공 건수의 감소 등 시장요인의 영향으로 니혼코아손해보험을 제외한 5개 손보사의 수입보험료가 감소하였으며 화재보험에 대한 금융청의 보험가격 조사가 수입보험료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이 신문은 분석함.

(FujiSankei Busines I, 6/6)

□ 외국계 생보사 2007년도 수입보험료 실적 결과 발표

- 일본에서 영업 중인 외국계 생보사(13사)들이 집계한 2007년도 결산실적에 의하면 변액연금보험의 판매 증가에 힘입어 10개사에서 수입보험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한 ING생명, 매뉴라이프생명, 카디프생명은 방카슈랑스를 위해 신규로 개발된 변액연금보험의 판매가 늘어난 것이 수입보험료 증가의 주요인이 되었음.
- 지브럴터생명은 모회사와 관계하던 달러기준 개인 연금보험의 재보험계약을 취소하면서 수입보험료가 51.8%나 증가하였음.
- 한편, 알리코재팬이나 하트포드생명보험은 연금보험의 판매가 기대했던 것만큼 증가하지 않았으며 이는 미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후 주식시장의 혼란으로 상품의 구매력이 감소한 것과 함께 작년 10월 금융상품거래법 시행으로 금융기관이 신중한 판매전략을 취하였기 때문임.
- 또한, AXA생명보험 등은 기업CEO 전용상품인 체증 정기보험의 판매를 중지한 것도 수입 감소의 요인이 되었음.
- 하트포드의 한 임원은 2007년도에 판매가 주춤하였으나 “2월에 투입한 변액종신연금보험의 판매가 상반기에 들어가면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해 신상품 투입 등으로 반전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임.
-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주가 하락과 엔고의 영향으로 알리코재팬이 466억엔, 지브럴터생명이 319억엔의 유가증권 평가손을 계상하였고 하트포드생명은 2000년 일본에서 영업 개시 이후 처음으로 87억엔의 경상이익을 실현하였음.
- 외국계 생보사들은 일본의 대형 생보사들의 정체기에 신선한 이미지와 선진 금융기법 등을 통해 소비자의 니즈를 확보하여 성장할 수 있었음.
- 그러나, 최근에는 외국사들이 주력인 방카슈랑스와 제3보험에 대해 대형 생보사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시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FujiSankei Busines I, 6/3)

【 China Insurance Industry News 】

□ 외자보험사의 중국 단체보험시장 공략

- 상하이(上海) 소재 17개 외자생명보험회사 중 단체보험 업무 취급 자격을 획득한 회사는 12개사로 절대수치로만 보면 중국 국내보험회사와 대동소이하지만 수입보험료 실적을 보면 외자보험회사의 완패라는 분석임.
- 금년 1~4월 외자생명보험회사가 단체보험 시장에서 거수한 수입보험료는 1.6억 위안으로 전체 상하이 단체보험 시장의 4.34%에 불과함.
- 외자보험회사는 한때 중국 단체보험 시장의 다크호스로 부상한 적이 있었으며, 이는 진입초기 합자 상대방이 대부분 대형 국유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들 회사의 단체보험을 유지하게 된 것임.
- 지난 2005년 중이생명(中意人壽)이 중국의 합자파트너인 중국석유의 단체보험을 유지하면서 외자보험회사 1위를 기록하였으며, 금년 4월 귀타이생명(國泰人壽)도 3,300만 위안의 단체보험 유치 실적을 기록하였음.
- 하지만 외자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합자파트너 회사의 보험을 유지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며, 단체보험의 블루오션을 찾아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며, 외자보험회사가 개척하고 있는 단체보험 시장은 '단기보험+분할납'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전망.
- 4월 말 현재 외자보험회사의 단기 단체보험 거수보험료는 1.12억 위안으로 전체 단체보험료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 국내 보험회사의 해당 비율은 12.8%에 불과함.
- 분할납의 경우 AIA, 중홍생명(中宏人壽)은 일시(연)납이 아예 없는 상태이며, 여타 외자보험회사도 30% 미만인, 반면 타이핑양생명(太平洋人壽), 타이강생명(泰康人壽) 등 중국 국내 보험회사는 일시(연)납 비중이 75%에 이르고 있음.

(해방일보, 6/4)

□ 중국인민보험공사, 주택건물보험으로 대형재난에 대비하자

- 중국정부는 "잇따른 재난에도 불구하고 이른 시간 내에 대형재난보험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하지만, 대형재난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손 놓고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만도 없을 것"이라고 전함.
 - 중국인민공사의 고위관리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 부분적인 조치로 일반인들의 수요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은 '주택건물보험' 뿐이라는 분석임.
- 관련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자연재해 발생 후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정부, 사회, 보험을 통틀어 손실액의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평균치인 36%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금액임.
 - 이는 일반인들과 어지간한 기업들은 보상받기 힘든 수준이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여전히 보험회사나 재보험사에 의지하여 대형재해에 대항해야 한다면 그만큼 보험회사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전함.
- 이 때문에 정부와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주택보험 보조금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이 제도는 일반인들이 주택보험 가입 시 지진, 홍수, 설해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특약'을 개설하고 이를 강제가입토록 규정하되,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재정에서 부담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이러한 방식은 중국정부가 지난 해 시행한 양 퇴치 보험 강제가입을 통해 시범적으로 시행한 바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추측임.

(상해증권보, 6/5)

【 Financial Key Indicators 】

구분		07년말	08.5.30(금)	08.6.6(금)	전주대비
금리 (%)	韓 국고채(3년)	5.74	5.46	5.48	0.02
	美 10년국채	4.03	4.05	3.94	-0.11
	英 10년국채	4.51	4.94	4.95	0.01
	日 10년국채	1.51	1.76	1.8	0.04
주가	韓 KOSPI	1,897.13	1,852.02	1,832.31	-1.06%
	韓 KOSDAQ	704.23	652.80	644.09	-1.33%
	美 DJIA	13,264.82	12,638.32	12,209.81	-3.39%
	美 Nasdaq	2,652.28	2,522.66	2,474.56	-1.91%
	英 FTSE100	6,456.90	6,053.50	5,906.80	-2.42%
	獨 DAX30	8,067.32	7,096.79	6,803.81	-4.13%
	佛 CAC40	5,614.08	5,014.28	4,795.32	-4.37%
	日 Nikkei225	15,307.78	14,338.54	14,489.44	1.05%
	中 상해종합	5,261.56	3,433.35	3,329.67	-3.02%
	대만 가권	8,506.28	8,619.08	8,745.35	1.47%
환율	홍콩 항셱	27,812.65	24,533.12	24,402.18	-0.53%
	원/달러	938.20	1,031.40	1,022.20	-9.20
	원/100엔	833.33	977.03	964.47	-12.56
	엔/달러	112.58	105.56	105.38	-0.18
	달러/유로	1.4722	1.5509	1.5721	0.0212
	위안/달러	7.3041	6.9379	6.9394	0.0015